


공동체 소식



**연중 제18주일**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요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 주소서.

7월 기도지향

- + 정한조, 정지연 막달레나의 가정을 위하여
-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8월 첫주간 신심미사 안내

- 예수성심신심 : 8/5(금) 오전 10:00, 미사 30분 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 있습니다.
- 성모신심미사 : 8/6(토) 오전 10:00

8월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8.13(토) 11:30부터.

유아세례

- 일시: 8/7(주일) 오전10:00, 대상: 차민준

2016 엠마오 피정(오마하 천주교 한인성당)

- 일시: 9/2(금) ~ 5(월)
- 장소: Immaculata Monastery 300N. 18th St. Norfolk, NE 68701
- 전화: 402-371-3438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본당 '평일미사' 에 참여하는 것은 신심생활의 근본입니다.

본당에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거나,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건
37	221	504	401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차민서 임마누엘	문호진 안토니오
	김정원 안젤라	이원준 요한
다음주일	고평원 프란치스코	문호진 안토니오
	문예나 요안나	이원준 요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대연 요셉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차주	최은미 아네스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정지현, 한순례, 조지연
차주	김화년, 안현숙, 정명숙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7/24	72명	374불	800불
(총 3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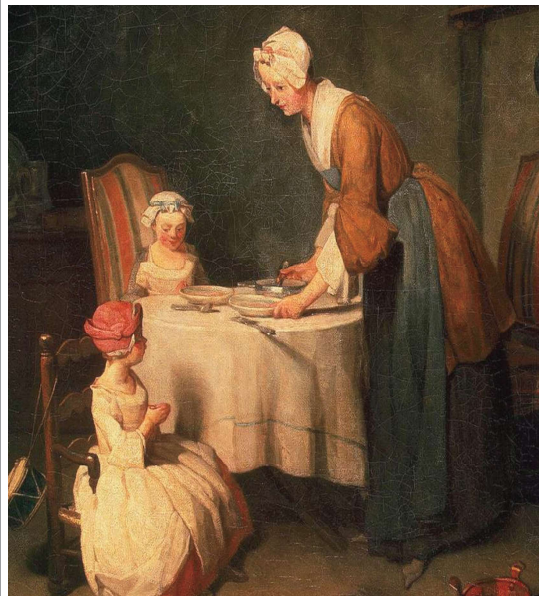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 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만 달려 있는 듯 탐욕에 사로잡혀 돈이 최고라고 믿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욕망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하고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됩시다.

### 성화해설

#### 식사 전 기도 (장 바티스트 시메옹 샤르댕, 러시아)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루카 11,2-4) 주님의 기도는 매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마음과 정신 안에 늘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 우리 몸이 잠들었을 때에도 마음은 늘 이 기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믿음의 문」 9항 참조)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코헬렛의 말씀입니다. 1,2; 2,21-23

<그 모든 노고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화답송 :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나이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나이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5.9-11

<여러분은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13-21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 쉐 마

##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 둡시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 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사건이 며, 죽음을 맞는 이는 처음 세상에 올 때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 위에 쌓아둔 재산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 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이가 평등하며, 죽는 이는 재물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모습 그 자체로 하느 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돈과 재물만이 나에게 생 명을 주리라고 여기는 이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 인지 경고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 하느님 앞에서 행복한 사 람,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곧 죽을 때 하느님 앞 으로 가져갈 수 있는 참된 재물은 무엇입니까? 성경 은 세상 안에 살면서 하늘에 천상 재물을 쌓아야 한 다고 말하는데(루카 12,33-34), 하늘에 쌓는 재물이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과 이웃들에게 봉 사함으로써 얻는 열매들입니다.

물론, 돈과 재물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은 아 니합니다. 돈과 재물은 지상에서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으며,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재 물 자체에 부정적 시각을 지닌 루카 복음사가 외에는 돈이나 재산이 그 자체로 불의하거나, 쓸모없다고 말 하는 성경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재 물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깁니다. 다만 돈 과 재물이 자기 능력으로 모은 것으로,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쌓아두며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사 는 것을 경계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재물은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과 이웃 을 위해 봉사하도록 위탁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 리는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재산관리자 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받은 재물을 정 말 잘 관리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더 나아가서 하느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돈과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자 신의 안녕을 지켜준다고 착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 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재물을 하느님 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 해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이에게 돈과 재물은 하느 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의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과 이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뿐입 니다. 이런 이들에게 돈과 재물은 파멸로 나아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는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는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며, 하느님 보시기에 가엾은 사람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하느님과 이웃을 위 해 봉사하라고 맡기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것들을 잘 이용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재물을 하늘 나라에 쌓아 둡시다. 흥청망청 살아가는 삶, 자신만 을 위해 재물을 쌓는 삶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이웃마저 망쳐놓아 자신의 삶을 영원한 생명과 전혀 반 대되는 길로 나아가게끔 할 것입니다.

- 영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성인 말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움입니다.

- 가정자 테클라 메들로 -

# 주춧돌

## 예수님의 참 가족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시 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과 제자들은 심신이 매우 지쳤 지만 예수님은 열성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 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병자들과 마귀 들린 자 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모여드는 군 중 탓에 식사할 시간도, 잠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예 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뽑으신 후에는 본격적으로 복 음전파에 나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방문 합니다. 그들은 어떤 소문을 듣고 왔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3,13-21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이 베 엘제불이 들렸다고 하고,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 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습니다. 이 비난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 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은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 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지만 용서 받지 못할 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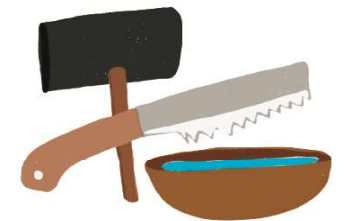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3,22-30

예수님도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자렛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집에 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도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 중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는 소

식을 듣고 마음으로 몹시 기뻐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처럼 의지와 힘이 되는 존재는 없습 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 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시며 무엇이냐 말씀하시나 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3,31-35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무 소득 도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 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 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오 히려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 려 너무 가까이에 있어 실재를 잘 보지 못하는 이치 입니다. 예수님도 가족에게 철저히 이해받지 못하고 배척받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우리 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때 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나 자기 자신은 하느님 을 따르는 데 있어 넘어야 할 마지막 걸림돌이 될 수 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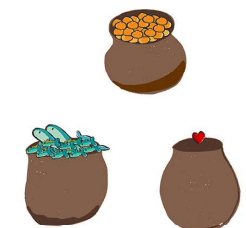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복음묵상

##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

- 처음부터 주머니는 문제가 아니었지요
-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문제였답니다.
- 돈을 담으면 돈주머니  
물고기를 담으면 물고기 주머니
- 마음을 담으면  
마음 주머니
- 처음부터 주머니는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루카 12,17)